

투데이 칼럼

공항 가는 길은 '특권' 아닌 '기본권'

대한민국은 지금 '하늘길' 대중화 시대에 살고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해외 여행객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외 항공 이용은 이제 보편적인 여가 생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하늘길이 막힌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공항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한 고행길이다.

인천공항으로 출진 기형적인 교통망 속에서 가까운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으로 향하는 직통버스 노선조차 확보하지 못한 전북의 현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북 버스회사와 전북도에서는 김해공항과 청주공항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선 조정을 신청하여 이달 말에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간 전북 도민들의 비행기 이용은 군산공항을 통해 겨우 제주 정도나 이용하는 극히 미미한 비행기를 이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그나마 비행기 편이 별로 없어 광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등을 가기 위해 부산 김해공항을 이용할 경우 대전이나 광주를 거쳐 환승하거나, 부산으로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환승하는 수고를 거치거나 비싼 요금을 감수하며 자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청주공항 역시 유성을 거치는 등 배차 간격이 길고 경유지가 많아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넘어, 전북 도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편의 이면에는 인접 지자체와 버스 운송업체들의 이기적인 '제 밭그릇 지키기'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과 청주 지역의 운수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업권 침해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북 노선의 진입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

지자체 간의 협의는 이들의 반대 에 막혀 수년째 공전해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쪽 지역을 오가야

하는 이용객들에게 전가되었다. 대중교통의 본질은 '공공성'에 있다. 특정 업체의 배 불리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 시민의 편의를 희생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공은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자체 간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이를 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노선 조정 심의에서 국토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명확하다. 바로 '이용객의 편의'와 '대중교통 활성화'이지 지역업체의 기득권 지키기는 아니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직통버스 노선 확충은 단순한 편의 증진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첫째,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된다. 전북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국제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내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 확충 없이 국제적 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탄소 중립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실천하는 길이다. 직통 노선이 없어 자차 운행이 강제되는 현실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이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셋째, 지방 공장의 활성화다. 전북 도민의 수요가 유입될 때 김해와 청주공항 역시 명실상부한 거점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전북도민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조정 과정에서 운수업체의 단기적 손실 우려에 휘둘리지 말고, 하늘길이 없는 전북 도민들의 해묵은 숙원을 해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인위적인 결정을 해서선 안 된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하늘길이 막힌 전북 도민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길을 헤매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교통 복지' 차원의 통 큰 결단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사설

故 이회찬 시인의 '황태덕장'

겨울 하면 떠오르는 풍경 중 하나가 황태 덕장이다. 이곳은 저 멀리 러시아 바다에서 자란 명태가 강원도 인제로 들어와 황태로 거뭍히는 현장이다.

뜨끈한 해장국의 주재료이자 지역민들 생계를 책임져 온 이 효자 상품이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 산등성이 사이로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원도 인제 내설악의 모습이다.

황태 덕장에선 주렁주렁 명태를 너느라 분주하다. 이렇게 널린 명태가 닢 달 동안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면, 비로소 황금빛 황태가 된다.

예전 같으면, 이미 작업이 모두 끝났어야 하지만, 이번 겨울엔 많이 늦어졌다. 추위가 늦게 찾아온 데다, 포근한 날도 많았기 때문이다.

황태 덕장 농민들은 아침에 영하

18도, 19도 특히 눈보라가 칠 때 일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조건이 맞지 않는다. 최근 고환율도 걱정이다. 우리나라에선 명태가 사라져 모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1년 전 1kg에 3만 5천 원이던 수입 가격이 지금은 5만 5천 원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올해는 원물 가격이 오르면서 덕대가 설치되지 못한 곳이 수도룩하다. 황태 가격을 마냥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제 용대리의 황태 덕장 22곳 가운데 절반이 생산을 포기했다.

보족한 해결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숨을 쉰다. 용대리 덕장이 흔들리며, 올해 인제군의 황태 생산량은 평년의 1/3 수준인 천만 마리에 그칠 전망이다.

오래 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아동 시로 입선한 전주 출신 교(故) 이회찬 시인의 '황태'가 생각난다.

'새로운 60년 시작' 한·일 국교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던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쉽게 또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야마 고대의 한국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서틀외교 첫 기회로 대통령님과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 전 (소인수회담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동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앞으로의 60년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 한일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일을 시작으로 한일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해로 만들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거리 메운 ICE 반대 시위대



26일(현지 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대가 전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

히잡 없이 거리 활보하는 이란 여성들



25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두 여성이 작동 불능 상태의 전투기가 놓인 손상된 미국 항공모함이 묘사된 대형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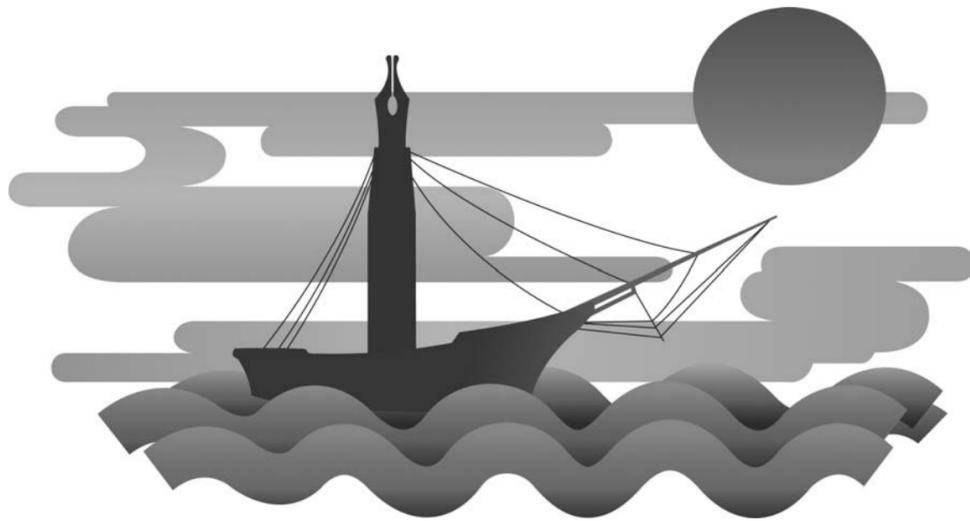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